朝鮮日報

本紙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日中聯盟論

×

蔣介石이 다시 上海에 돌아가며 國民黨의 合同, 北伐의 再行으로 南中國革命戰線이 다시 擡頭하게 되고 그 대신 北方의 張作霖軍閥에는 暗黑時代가 되돌아오리라고 하엿다. 더욱히 唐生智가 武漢의 根據地를 버리고 급자기 日本으로 脫走하고 南中國의 形勢가 일마금 變動됨을 따라서 그들의 北進의 氣勢는 적이 旺盛하여질 傾向이 업는 것도 아니엇섯다. 지금은 南中國의 形勢가 歸決되지 아니하엿고 各派首領들의 態度가 不明한 이때에 日中聯盟論이 傳하는 바 잇다.

×

南京政府를 中心으로 日中聯盟論이 擡頭되엇다 한다. 그의 政治的 現實性을 論議하기에는 아즉 도 일은 다. 그러나 孫文先生의 大理想이엇다고 宣傳되는 日中聯盟論이 中國革命運動의 現在의 危機를 說明하는 말로서는 興味잇는 것이다. 逆轉이냐 分裂이냐의 岐路에 섯는 그들의 運動은 급자기 하면 帝國主義와의 妥協을 斷行하게 되엇다. 露西亞의 對中政策의 眞相이 暴露된 것, 日本政府의 方針이 반듯이 北方援助에 偏頗치 안는 일 등이 日中聯盟論이 傳하게 되는 原因이요 蔣介石의 渡日 中에 某方面과의 會話가 成立되어 이것의 實現이 可能할 階段에까지 나아갓다고 한다. 이만큼 생각하고 보면 귀에 찔리는 새 消息도 아모것도 아닌 今春 以後부터 굴허오든 소문이다.

×

孫文의 在世當時에 日中聯盟論을 論한 바 잇든 것은 吾人도 記憶한다. 그리고 渡日의 길로부터 문득 再擧의 길에 올랏다는 蔣介石을 中心으로 이러한 風說이 風說로서 돌을 可能性도 만타. 그러나 『부르조아』的 民主主義를 指導原理로 삼고 農者 ‧ 樂擧의 生活을 憤慨하게 되는 階級的 屬性을 버서버리지 못하게 되는 右翼各派의 首領들로서는 그의 공문이 가드갑도록 밧작 버여서 『소베트』의 露國과 共鳴하는 無產民衆의 革命的 力量에 對하야 문득 疑懼의 念을 날으키지 아니할 수 업슬 것이오 그리하야 가장 便宜한 帝國主義國家의 一勢力에 依存할 計策을 取하는 것은 원낙 잇슬 수 잇는 일이다. 이 點으로 보아서 日中聯盟의 論이 마치 曾前 蔣, 張妥協의 論과 한가지 世間에 擡頭하게 되는 것이다.

×

日本政府는 北方의 擁護에 關하야 거의 不變의 鐵則을 가지고 잇다. 滿蒙積極政策이란 者는 곳 이를 表示함이다. 그러나 北方擁護가 반드시 北方의 固定된 一個人 一個系統의 勢力을 擁護함이 안인 것과 한가지 南方에 對하여서도 반드시 지금에서야 말을 바 아니다. 이 敵對本位의 政策이 안인 것은 英, 米, 日等 列國이 더 兩俊總花의 政策으로 지금까지 慣用하는 바이엇다. 그러나 日中聯盟가 큰 것이 過渡的 方便으로서 利用할 수 잇는 政策이라고 할지라도 民衆의 아페서 항상 暴露와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인 無產階級的 指導勢力과 並立하야 成功을 期할 수 업는 것은 明言하여 둘 수 잇다.

今後의 廣東은 完全히 張氏의 天下

李濟琛의 地位를 代取

（香港十九日發） 李濟琛, 黃紹雄氏等의 壓迫으로 日本或濁逸의 旅行을 發表하고 數日前에 香港에 引退되엇든 張發奎氏는 十七日 以來 黃祺翔, 朱暉日氏等의 迎接으로 다시 廣東에 復還하야 李濟琛氏의 地位를 代取하야 事實上 廣東의 統治者가 되고 廣東附近은 平穩한데 西江方面에 逃避한 黃紹雄氏는 第七軍의 主力인 范石生의 廣東軍을 모으고 廣東을 逆襲함으로 兩軍의 衝突은 三四日後에 잇스리라더라

◇黃祺翔구데타는 ◇汪兆銘氏의 陰謀

（香港十九日發） 黃祺翔氏의 『구데타』가 잇슨 뒤로 黃紹雄等은 香港에 多數逃入하얏는데 그中 有力者의 말을 들으면 今回의 擧措는 汪兆銘氏等이 廣東을 떠나기 前에 張發奎, 黃祺翔, 何香凝氏等의 左派人物과 計劃한 것이오 그 成功을 確實이 하고저 汪氏는 巧妙한 말로 李濟琛과 上海에 同件한 것에 지나지 못한다 그런데 黃紹雄氏는 그 計劃을 看破하고 昨日에 곳 南京의 白崇禧氏와 漢口의 李宗仁氏에게 打電하야 그 計劃을 詳細報告하야 反革命의 名義로 汪兆銘의 逮捕를 要求하얏다 고하 一說에 依하면 李濟琛等의 歐天仇氏等도 昨日에 捕縛되엇다 더라

廣東事件의 內容判明으로 汪氏의 灰色態度모다 反對

（上海二十日發） 汪兆銘氏의 態度는 全혀 灰色으로 當地到着後도 一部에서 疑問視하엿는데 二十日午後부터 各地에서 汪兆銘反對의 宣傳文을 보게 되엇다 其理由는 張發奎氏가 廣東에서 波瀾을 이르킨 것은 全部 汪氏 指導인 것이 判明된 外닭이다 國民黨要人은 全部 汪兆銘氏와 面會하기를 謝絕하고 二十日 朝南京으로부터 到着한 白崇禧氏와 가튼 人은 協議하려 옴에도 不拘하고 汪兆銘氏와 面會치 안코 二十日 夜歸任하기로 되엇는데 汪氏는 身邊의 危險을 感하고 廣東에 돌아갈려인바 十九日夜 蔣介石氏가 記者團의 招待席上에서 沈默을 지킨 것도 原因은 이 外닭이라 더라

胡、黃兩氏逃走說

（香港十九日發） 廣東의 『쿠ー데타』로 因하야 胡鈞氏가 北江에 遁走하엿다는 風說이 잇는데 黃紹雄氏의 事件이 이러나던 當夜 沙面에 逃하야 十八日夜 英吉利汽船으로 香港에 入하고 다시 梧州（廣西省）로 向하엿더라

廣東戰雲低迷

黃紹雄軍韶關에 集中

（香港十八日發） 廣東의 戰雲은 漸次切迫되어 韶關에 集中한 黃紹雄軍의 主力은 廣東을 奪回하고 方面에 잇는 李濟琛氏部下의 陳濟棠軍은 黃祺翔軍으로 말미암어 廣東이 强奪되엇다는 報를 接하자 直時 兵을 廣東에 進向시키엇슴으로 黃祺翔軍은 平山方面에 留陣하고 此를 阻止하라하며 또 廣東市內는 公安局의 衞兵으로서 警備하고 잇다 그리고 廣九鐵道의 停車場 及 波止場은 廣場에 向하는 兵隊로서 大混雜을 일우엇다 더라

儒教를 振興

張作霖이 靈施館設立

（北京十七日發） 近年中國人士의 墮落腐敗는 儒教의 廢頹에 基한 것이라는 見地로 張作霖 大元帥는 靈施館의 設立을 命하엿는 바 이 만치 成立되고 役員도 決定하엿슴으로 今日午後二時부터 發會式을 擧行하고 潘復總理를 비롯하야 閣員이 全部 參列한 後 潘復氏가 總裁로 任命되엇더라

… 廣東에 向하야 推進한 바 此에 對하야 黃祺翔軍은 兵을 난우어 北方間에 進行시키어 防禦코저 하야 이미 汕頭 … 廣九鐵道는 切斷되엇스며 汕頭 …

廣東省政府改造

緊急善後會議結果

（香港十九日發） 廣東省政府는 十八日午前十一時 緊急會議를 開하고 黃祺翔, 李福林, 顧孟余, 陳樹人, 何香凝, 陳公博, 王法勤 氏等이 出席하야 善後策에 對하야 左와 如히 諸項을 決議하엿다

一、張發奎氏를 政治分會委員으로 勸誘할 것

二、朱暉日氏를 軍事廳長兼省政府委員에 任하고 陳樹人氏를 省政府委員으로 勸誘할 것

三、臨時軍事委員에 黃祺翔, 朱暉日, 范石生, 陳濟棠, 方鼎英 氏等을 任命할 것

江蘇全省을 暴動化할 大陰謀

劉、葉軍과 農民軍이 聯合하야

（上海廿日發） 南中國一帶의 共產黨間에는 江蘇全省을 暴動化시키려는 陰謀가 計劃中인바 同計劃은 汕頭에서 失敗하고 浙江, 江蘇에 潛入한 劉賀龍, 葉挺軍의 殘黨 約二千과 各所에 潛在한 農民軍 三萬과 合同하야 組織的인 것인데 宜興 無錫의 暴動事件도 此에 關聯한 것이며 上海暴動計劃으로는 罷業手段에 依하야 恐怖政策을 行하려는 것인바 紡紡의 密偵 五名과 日本人 職工二名 暗殺은 其一端이라고 觀하더라

長沙에 集中

（長沙廿日發） 唐生智氏의 引退에 伴하야 그 部下 第四師는 漢陽으로부터 鐵路와 水路로 湖南에 돌아와 이미 長沙에 到着한 者가 七八萬人에 達하고 李品仙, 何鍵等도 十六日 長沙에 到着하엿다는 바 市內는 不穩하야 日沒後는 一般交通을 禁止하야 嚴重히 警戒中이더라

孫軍無餘地壓迫

孫傳芳은 急遽히 南下

津浦沿線의

（濟南十八日發） 津浦線의 孫傳芳軍은 餘地업시 南軍에게 急迫되어 全軍은 暫時 徐州方面에서 壓迫中임으로 孫氏는 十七日夜七時 三十分에 濟南을 出發하야 同地로 向하엿더라

白內閣總辭職

（나우엔二十日發） 『석랑셀』에서 온 報道에 依하면 一千萬法의 巨額을 投하야 『마ー스』河의 要塞修築工事를 한다는 事와 其他 白國政府의 軍事政策에 關聯하야 同國의 社會黨出身 閣員 四名은 明日辭職하리라 고하며 巴里 政界는 右四名共히 他의 閣僚도 辭職하고 前首相 『주니스』氏가 新內閣을 組織하리라고 觀測하더라

全軍集中後 廣東을 襲擊

（香港十八日發） 黃紹雄軍의 主力은 目下 韶關附近에서 全軍의 集中을 기다리어 大擧하야 廣東을 襲擊하라는 形勢인데 西江附近에 잇는 范石生氏의 第十六軍 廣東近鄕에 잇는 李濟琛軍의 向背 如何에 依하야 廣東은 再次兵火의 巷으로 될 憂慮가 잇다더라

日、中聯盟은 極東平和基礎라고 實現의 可能性은 疑問

國民政府遣日代表許崇智氏 談

（上海十九日發） 日中聯盟問題에 對하야 今回 渡日한 國民政府 代表 許崇智氏는 十八日夜에 來日 新聞記者를 自宅에 招待하야 渡日의 使命을 左와 如히 發表하엿다

（問）孫文氏의 遺志로 此際에 日中聯盟을 實現할 것은 우리 國民黨의 實務요 極東平和의 基礎이다

（問）孫文氏의 理想은 日、中、露三國의 同盟이 아닌가

（答）그런 것이 아니라 獨逸을 加한 四國同盟이다

（問）獨逸을 加하면 露國은 除外하게 되지 안흘가

（答）一九二三年一月二十六日에 上海에서 孫文氏와 『요페』氏와 會見하고 發表한 兩氏의 聯合宣言을 아는가 그 宣言中에 孫文氏는 共產黨組織及 『소베트』制度를 中國에 適用하는 것이 不可能한 것을 指摘하고 露國은 다만 國民革命의 完成을 援助할 것을 誓約한 것인데 그 뒤에 『카라한』이 오고 『보로진』이와서 露國의 革命援助는 中國을 全然히 共產化하랴는 것이다

（問）聯盟은 實現의 可能性이 잇슬가

（答）可能性의 有無는 問題이 나 반드시 實現시키라는 것이로다

… 中과는 共產黨이 全部相反된다 聯莫斯科政府는 世界의 進展을 停滯시키나 『파시스트』黨의 伊太利政府는 創造나 破壞를 하지 안는다 말하자면 人類에 對하야 한 것 幻影을 …

民國의 賊 唐生智를 내라고

中國學生의 形勢不穩

（鹿兒島電） 唐生智氏의 亡命說이 傳하자 鹿兒島 第七高校及 高等農林의 中國留學生은 자못 憤慨하야 二十日午前十時에 約二十名이 唐氏 旅館인 鹽屋을 訪問하고 民國의 賊 唐生智를 내노라고 强迫하야 折衝의 任에 當하엿든 張參議 長以下 數名의 幕僚를 에워싸고 不穩한 形勢를 보엇슴으로 鹿兒島署에서 高等係長以下 署員 數名과 縣 高等課員等이 달려가서 警戒에 努力하엿다 그리하야 留學生等은 唐氏 驅逐의 決議文을 드려 밀고 萬歲를 高唱한 後 十一時 頃에 退却하엿더라

莫斯科政府는 世界의 進展을 停頓시킨다고

伊國粹黨紙論評

（羅馬十七日發） 『파시스트』의 『멜시세증』 『파시스트의 差異』를 說明하야 左와 如히 論하엿더라 『파시스트』黨의 信條인 『파시스트주의』은 規律잇는 精神과 不撓不屈의 努力으로서 益益前途를 開發하는 것이나 此에 反하야 過激派의 …

勞農軍縮代表

人選決定

（伯林十九日發） 某處 情報에 依하면 國際聯盟軍縮準備委員會의 委員과 公然히 接觸하야 外露西亞의 國際政局上 活動範圍擴張에 努力할 이라고 觀測하더라

農露軍縮參加

聯盟當局은 크게 驚動

（제네바十九日發） 來十一月 三十日부터 開催될 國際聯盟 第四回軍縮小委員會에 露國에서는 外交委員長代理 『리트뷔노프』氏를 비롯하야 多數한 代表가 參加한다는 報導는 聯盟當局者를 驚動시키엇다 聯盟當局者는 露西亞代表者는 此機會를 利用하야 聯盟理事會 …

에 出席할 勞農代表氏名은 左와 如히 決定하엿다

勞農聯邦外交委員長代理 『도비노푸』氏

勞農聯邦教育委員長 『올나잘스키』氏

『레크닌당도』勞働組合會議長 『에렌스』氏

『우기로푸』海軍專門委員

陸軍專門委員 『석가료푸』氏

白系馬賊

赤派露人脅迫

（哈爾賓二十日發） 『흐럿스키』氏等의 反幹部首領가 『알코프』에 逃하야 『스타ー린』政府에 叛旗를 들엇다는 誇大的 報道가 哈爾賓에 傳하자 白系露人의 喜悅은 絕頂에 達하야 各方面에 暗中飛躍을 試하야 哈爾賓沿線은 横道河地方 密林에 根據를 둔 有力한 馬賊은 白系露西亞人을 頭目으로 赤派의 露西亞人에게 脅迫狀을 送하야 不應할 時는 其兒童을 密林에 拉致하야 赤派에 對하야 兇暴한 復讐를 始作하엿더라

全歐洲武裝兵

大戰前보다 百萬減少

【英國陸相이 指摘】

（倫敦九日發） 『로이드‧조ー지』、로사미아、및 其他의 名士가 歐羅巴의 軍備를 論議함에 當하야 戰前보다 도 强大히 軍備를 有한다고 함에 對하야 英吉利 陸相 『워싱톤』이반스』氏는 其立論의 不合理함을 指摘하고 現在 武裝한 兵員數 一千萬이라고 함은 誤謬이고 歐洲의 現在 武裝한 兵數의 正確한 바는 三百五十五萬二千이다 이것은 一九一四年 歐洲戰爭當時의 兩軍總兵員 五百三十一萬八千人中 歐洲大陸 諸國의 兵數 四百三十五萬六千 四百六十六名이엇슴에 比하야 約 百萬이 減少되엇다고 發表하엿다

맥도날드氏

帝黨首領辭退

評判不好로

（倫敦十八日發） 勞働黨首領 『맥도날드』氏는 最近 健康이 不良하야 黨內의 評判이 不好한 外닭에 近近 引退하리라는 風說이 잇는 바 萬若 氏의 引退가 實現되면 後任은 『쿠ー퍼인스』氏가 되리라더라

카롤殿下

聖誕日歸國說

（巴里十八日發） 羅馬尼 『카롤』殿下 가 『크리스마스』에 本國에 돌아간다는 說이 本日 當地에 傳하엿는데 此는 殿下의 愛人 『루푸스쿠』夫人에게서 『카롤』殿下에게 가려고 巴里에 來한 것으로 … 對하는 前政府內閣首相 『쿠라치』氏를 老黨하고 云云하더라

… 興하야 此를 自覺的 ….

勞働者扶助案

來議會에 提出

（東京電） 建築土木關係의 勞働者는 頭目部下의 關係로 災害를 受하더라도 法律上 救濟는 受하지 못하엿스나 內務省은 勞働者扶助法案을 作하야 五十四議會에 提出할 터이더라

… 拓務省 … 分掌 …

無產合同

日勞黨拒絕

（東京電） 日本勞農黨은 十九日午後 本部에서 … 無產黨을 合同시키고 … 共同提唱의 申請할 것을 發表 … 分裂者가 如斯히 轉換 … 의 指導精神이 完全 … 한 것이라고 聲明書를 … 하고 勞働農民黨의 申請을 拒絕하기로 決定하엿더라

人事

▲색톤너氏（… ） 는 二十四日午後 … 京城 … 由 歸國 … 기로 하엿더라

▲헨리‧쓰‧코엣만氏（駐日米國大使）二十二日午後七時四十分 入京 二日間滯在 二十四日午後八時 京城驛發 安東에

八面鋒

○ 國民政府遣日代表 許崇智氏는、日中이 聯盟하는 것은、極東平和의 基礎다 고 떠든다、…

○ 所謂 聯盟이란 그것의、實現與否가 問題라면서、平和非平和의 將來를、判斷할 頭腦가 잇나

○ 그러치! 眞正한 共存的 公心으로 眞實된 聯盟만、成立된다면 더 말할 것이 무엇인가마는……

○ 그러한 頭腦와 襟度는、모다 업서 가지고、허울조흔 『왜강정』만 내세니 안 말이지

○ 田中首相은、오는 議會에 反對派만 잇스면、解散 시킬지도 모르겟다고、술 어니 울으는 군

農露政情의 內容

共產黨分裂과

레닌逝去하기 前부터 트지兩氏의 放逐까지

勞農露西亞現幹部派 一派와 反對派인 『트럿스키』 『지노뷔에프』 間의 暗鬪는 畢竟 露國共產黨會議에서 反幹部派 『트럿스키』 氏 會議에 參加하엿다는 理由로 共產黨 六十七名을 莫斯科中央執行委員會에서 放逐한 바이 와가티 內訌이 激烈하게 된 由來를 略記하려 한다 露西亞共產黨의 內部分裂이 처음으로 明瞭히 表面에 나타나기는 『레ー닌』이 逝去하든 直前인 一九二三年末엇다 그때 『트럿스키』氏는 反對의 急先鋒으로 共產黨의 統制를 예모다크로 하라고 攻擊하는 同時에 幹部派 『카메네프』 『지노뷔에프』 一派를 猛烈히 攻擊하엿다 (特히 트럿스키著 『一九一七年』에) 그 後 『지노뷔에프』 『카메네프』 一派는 經濟政策 特히 農民政策에 對하야 『스탈린』 一派와 意見의 衝突이 생기어 幹部反對派 가 되엇다 彼等은 이 以上으로 新經濟政策 以前의 綱領에서 退却하면 『레ー닌』의 精神에 背馳된다 고 幹部派를 反對하야 『레ー닌』主義의 本系統의 暗鬪가 始作되다가 이 暗鬪가 가장 高潮에 到達되기는 昨年 秋이다 곳이 때에 會往은 政敵이던 『지노뷔에프』 『카메네프』 派는 『트럿스키』派와 合倂이 되엇 中에서와 『레ー닌그라드』 郊外의 森林 … 히 會合하엿다 는 것 口實로서 猛烈히 壓迫을 加한데에 서 始作되엇다 그곳 그들은 할아리 『트럿스키』 一派와 握手를 求하야 『트럿스키』의 主張에 合致한 것이다 이와 가티 兩派가 握手한 後 昨年末에 『트럿스키』 『지노뷔에프』 一派는 幹部派의 壓迫에 屈하야 共產黨에 服從하고 決코 黨內에 別派를 設하는 行動을 取하지 안켓다 고 誓約하엿슴으로 此의 大多數의 決定에는 恒常 으로서 事件은 一時 落着되엇든 것이 잇섯스나 그 後 反對派의 勢力은 次第 로 增加되어 다시 反抗을 繼續할 自信이 잇게 되엇슴으로 今年 春에 露西亞의 國際關係가 紛糾되던 을 機會삼아 또 다시 積極的 行動에 出하게 되엇다

卽今年 五月二十五日에 反對派 는 中央執行委員會에서 宣言을 遂하야 中央執行委員會의 全政策을 攻擊하고 特히 그 失敗한 外交政策의 失敗에 向하엿다 그 宣言은 『트럿스키』 『지노뷔에프』 名하엿는데 그 事件의 『八三組』이라고 하게 되엇다 그 宣言中 彼等은 對中政策에 對하야 는 最初부터 『소벳트』制度의 組織에 努力할 것이다 먼저 資本的인 農民革命을 誘導할 것임에 不拘하고 헛되히 反逆將軍과 聯反者 集團인 國民政府를 援助한 外닭에 現露西亞政府의 革命的名譽를 毁損하고 또한 失敗의 羞恥를 보앗다 고 稱하고 對英策에 對하야는 勞働組合總同盟 最高幹部의 價値를 過信하야 마츰내 國交斷絕을 速進시키엇다 고 攻擊하엿다

이 結果 反對派의 行動은 又復論議의 焦點이 되어 드듸어 中央執行委員會와 中央監察委員會 合倂會議가 開催되엇다 그 席上에 反對外 도 招致하야 論議하엿는데 그 內容은 不明하나 人民外交委員長 『치체린』 當時 駐佛大使 『라코프스키』 와 外務省 關係의 有力者 가모히 어둡고 또는 農西哥公使 『콜론타이』 女史와 가튼 이는 멀리 文書를 보내어 反對派를 擁護한 外닭에 會議는 七月三十一日부터 十日間 延續되어 結局 最初 豫想되던 反對派首領을 中央執行委員會에서 除外할 件은 十二月一日부터 開催될 共產黨大會에 諮問하기로 하고 그 時는 讓步만 하고 말엇다 그 時에 幹部派는 (一)對外關係가 紛糾된 此際에 反對派는 宣言을 撤回하고 無條件으로 (二)第三 『인타ー나쇼날』의 異端政策을 撤回하고 獨逸의 極端左翼의 共產黨 一派와 斷絕할 事 (三)共產黨內의 分裂策을 撤回할 것의 三條件을 持出하엿스나 反對派는 無條件으로서 帝國主義의 露西亞에 對한 進擊을 排하고 『소벳트』 政權을 擁護할 것을 誓約하나 그러나 그 處地에 잇서서라도 主張을 닐이 일 때에는 幹部의 政策에 對한 批評의 自由는 保留한다 고 宣言하엿다 그 以後 經過는 本報에 報道한 바와 갓다

如何間 露西亞革命의 元勳 『트럿스키』 『지노뷔에프』 가 共產黨에서 放逐된 것은 共產黨에 對하야는 革命以來의 大事件이다 要컨대 反對派는 露西亞共產黨의 本來의 政策에 歸하라고 主張하는 것으로 兩巨頭의 放逐은 現在 露西亞에 在한 資本主義에 色彩를 띄운 國家主義 가 安定함을 意味함이다 그러나 所謂 反對派이라 는 者는 決코 『트럿스키』 『지노뷔에프』 가 全責任을 진 것은 아니다 共產黨의 純正分子로 한데다 가 現幹部가 너무 農民의 要求를 돌보아 都市를 輕視하는 事이 에 딸아 工業의 發展을 阻害함을 不滿으로 역이는 勞働者에 依하야 惹起된 것으로 그 根底는 堅固하야 兩巨頭가 除外하더라도 그 根絕을 할 수는 업는 것이다 反對派는 全國에 퍼첫는데 特히 『우크라이나』 에 旺盛하야 八月會議에서 幹部派가 斷然한 態度를 決하지 못함도 『우크라이나』 勞働者의 態度가 큰 關係가 잇섯다 다만 아니라 『레ー닌』다음가는 名譽잇는 革命의 二元勳이 放逐되던 以上 反對派에게 는 非常한 衝動을 줄 것은 定則이다 今後 彼等의 態度 如何와 發展은 實로 注目할 價値가 잇다

알바니아에 反伊熱熾盛

佛、유條約의 反對로

（나우엔十九日發） 『알바니아』에서는 佛 『유』條約締結의 報가 傳하자 盛히 反對한다 卽 反伊太利 示威運動을 하는 바 『알바니아』 內閣은 最近 改造되어 財相에는 伊太利의 敵으로 有名한 『스칼로아』 氏가 就任하엿는데 伊太利의 新興 『알바니아』 財政에 對한 支配勢力을 驅逐함을 主張하엿다 又 北部 『알바니아』의 士民은 伊太利의 軍事教官의 免官을 要求하더라

最高勞働法院

開院式擧行

（나우엔十九日發） 獨逸의 라입치히』 市에 建築된 最高勞働裁判所는 二十日 司法勞働兩局長이 出席後 開院式을 擧行하엿다 此 裁判所는 勞働에 關한 一切의 權利를 保證함을 其權限으로 할 것이다

拓省官制

法制局攻究中

（東京電） 明年七月一日부터 新設될 拓殖省豫算에 對하야는 當初 行政制度審議會에서는 百萬圓을 豫想하고 拓殖局에서는 百十二萬圓을 要求한 바 가 잇섯스나 大藏 …

자녀기르는 부모의알아둘일

변변치못한잔말은놀이어 자녀에게푸대접바들원인

가뎡부인

사랑하는자녀들을어떠케하면잘 기를가—이것은 아마자녀를 가진부모들의 다가티생각하는 일일줄압니다 양육문데와 교육문데에대한 최선의노력을 다하기위하야주야 로연구하지 아니치못할것이올시다 아동시대 처럼교육하기어려운때는업다하겟스니 넘우제맘대로만 하게하여도못쓰지마는 넘우엄격하게할수도업는것입니다 더구나 선악의리지력비판력이결핍하고잇는그대로놀내여놋는 순진한 이시대는아이에게희망하는부모의태도와 그주위의환경의 여하가꼿아이마음속에 영향을바더 순직하게자라나는 한편에 또한반항하는힘도매우 강한것이 올시다 자녀들기르는 데는부모가 자녀와평등이되지 아니하면 안되는동시에엄격한 지도자가 되는때도잇고온정을 가지고 마음으로 포옹하야 가르치지아니 하면안될일도잇습니다 그리고 항상부모는절대로 신뢰할수잇는 가장친밀한사람이 되는동시에 가장위엄을가진 자녀에게 대한위권자가되지안흐면 안되겟습니다 그러나이세상에는자녀에게업수히녁임을밧는부모가넘우만습니다 사회뎍으로는훌륭한디위들가젓고상당한가뎡을일우엇스며또한상당한교양이잇는부모이면서도 자녀에게 소홀한대접을밧는 경우가 만습니다 그러면대데엇더한 원인으로부터 자녀에게그런일을 당하느냐하면 물론부모의 교양과 그사람된뎡도여하에도 달렷겟지마는 오히려그것은 두뇌문데요 부모의맹목뎍신앙으로부터온모순과허세(虛勢)가가장큰 원인이된다고 생각합니다 례를들어말하면 아이들이조치못한일을하면 그것을 꾸짓기위하야 부모가마음에도 업는위협뎍태도로써이놈 그것이무슨짓이냐뎌저놈을 붓들어 동쳐매여두어야지 녜에이이놈삽어면다놋하고 소리소리지르며야단을하면서도 실상은 그것은말에지나지못하고 실행은 하지안습니다 실행하지도안흘일을 말로써만 그러케위협을 보이고마는것은 몰이어부모의 커신홀일는거즛말이랍니다 처음에는 소리를지르는바람에 놀내기를 마지아니하나 부모의그러한 잔말이재삼재사거듭나오기시작하면나종에는녜말뿐이지 때리기는무얼때려 녜공중또그러지 동처매기는무얼—이러한관렴을 아이들이가지게됩니다 또한 그런일을하면귀신이잡어먹는다는둥호랑이가잡어먹는다는둥하고 겁을내여주는것도역시그결과가마찬가지가되는것이올시다

감긔를예방하는 여섯가지비결

일로부터우리의주의할뎜

동경부하에서 첫먹는 아이와 어른들의 소화긔병과 호흡긔병의사망률을보면 소화긔병에 대한사망이 가장만흔날은 첫먹이아이는칠월 어른은 륙월부터팔월그사이에 가장만코 호흡긔병에대한 사망률은 첫먹이아이는이월 어른은 삼월에가장만트랍니다 그것을 보면치운겨울부터일흔봄철에 걸처서 호흡긔병에걸리는사람이 데일만흔 연고니 그병의 원인은 대개감긔로말미암음이라합니다 그러케 감긔는무서운것인고로 이로부터 일긔가치워짐을딸아감긔에 걸리지안토록일반가뎡에서는주의하지안흐면 안되겟습니다 감긔의예방으로는 다음과가튼 여섯가지를반드시 직혀야 할지니그대로만행하면 아모리 무서운독감일지라도 능히 저항하게됩니다

一、감긔에걸리지안흘예방은녀름부터 해수욕(海水浴)일광욕(日光浴) 랭수마찰 (冷水摩擦)등으로 신테를단련할것

二、피부를 강하게할일 즉랭수로얼골을씻고 호외 운동 (戶外運動)을 충분히 하며자리옷은 녹이지말고 찬대로가러닙을것

三、미다지와 문에풍지를하고 방에불은 그다지 뜨겁게때이지안는대도 화로에 불을담어물을끌여노코잘것이요자다가 자리옷바람으로 밧게나가지 말것

四、목욕한후에곳찬바람을쏘이지말고 치울때에 길가에서서 오래 잇지말며 밧게잇다가 더운방에들어가면 반드시 외투나 두루막이를벗을것이요 절단로 커준뇌복은남지 말것

五、감긔가 류행할때는 사람만히모히는곳에가지말고다른사람의기침이나재채기에주의하야 얼굴을 돌릴것이요또한자긔가기침이나재채기를하게될때에도 사람업는곳으로 돌려대고 하여야하며 외출하엿다가 집에돌아가면 반드시목양치를할것

六、건강한사람은치위를피하려고하지말고치위를저항할것

평양녀고보 바사大會

이십삼、사량일 동교내에개최

평양부공립녀자 고등보통 학교에서는 오는이십삼、사량일동안 동교안에서 바사대회를 열게되엇다는데 편물、자수、양재봉、조선재봉등으로만든 조선 가뎡의 실용될물건 삼백여뎜을 만드러 직석판매를 하기로 하엿다하며 관매시간은 데일일인 이십삼일

學藝

美術領域에在한 主體理論의確立 (二)

—反動的美術의拒否—

林和

萬一그러치안흐면 그것은藝術行動中心의限界을脫出치못하는새로운 藝術至上主義의赤色象牙塔을建設함에不過한것이다

여긔에서 나는 金基鎭氏의「프로레타리아美術批判」을分析檢討하야써 氏의似而非的無産階級美術論의根據를大衆의目前에暴示하랴고한다

氏는美術의階級的考究에先하야 이러한말을햇다

『美術—造形藝術에 잇서서는 아즉까지文學이나 戱曲等言語藝術과가티 社會民衆과積極的關係를가지고 오지안헛슴으로이다』

여긔에서우리는 如何한것을看取하는가 即우의引例는氏의藝術에對한 似而非無産階級的認識의正體를 暴露키에躊躇치안엇다

社會와의積極的關係를가지지안엇다는말을 나는理解하기가大端히困難하다

萬一그러타면 이때까지에造形藝術 即現在以前의美術家는

演藝와映畫

民衆의利害를無視한 一種의詐欺라고

米國常設館主協會大憤慨

◇로-드쇼에對하야 (三)

三萬五千圓大懸賞의 監督手腕比較에

◇『파라마운트』『스타바그』氏가當位◇

漫畫子가본文人 (17)

파리정대 黑星 權九玄氏

ASC

文藝의批評의 科學的態度 (一)

—엇던問者에게答함—

韓雪野

落葉 (童話)

馬山 李一乘

黃昏의가을

金時動

學生文藝

『鄕愁』

새세상사람들 (一〇〇)

夕影 作畫

十二의九

라디오 二十二日 放送

本報讀者優待

『大帝의密使』 上映中

三十一、二兩日間 市內團成社에서

砂防令發布計劃 山林部에서立案中

[illegible]
防施設의完璧을期하려는데잇고
成案을得하면審議室을通하야法
制局에回附하고制令으로布할階
段으로되리라더라

平南德川 農民俱樂部 去十六日組織

平南德川에서는아즉모든運動에充實치못한中農民運動도尙今具體化하지못하엿든바去十六日은同郡蠶上面棲鶴里에同面靑年들이左記宣言綱領 規約으로農民俱樂部를創立하고左記決議事項과委員을選擧하엿다더라(德川)

◇宣 言
우리는現實에잇서무엇보담도農民教養을急務로안다!그럼으로써이에—農民俱樂部를組織한다

◇綱 領
一、우리는農民大衆의現實的利益과및相互扶助를圖함
一、우리는無產農民階級의知識的向上과生活上啓發을期함

◇規 約(略)

◇決議事項
가、農民社友會解體에關한件
나、每月部員의文庫를蒐集하야『팜푸렛트』를發行할것
다、勞働運動을支持할것
라、農民總同盟에加盟할것

◇委員
組織部=李寬卿 教養部=李處奎 調查部=文斗奎

慶東 記者大會 第三回

慶北慶州에事務室을두고慶東線沿岸에散在한各新聞雜誌에從事하는記者로서組織된慶東記者同盟에서는第三回大會를永川에서開催함은既報한바어니와 豫定과如히去十四日午後二時부터永川名勝地인朝陽閣樓上에서三十餘名의會員과百餘名의傍聽客으로永川靑年同盟樂隊一行과會員들의檄文千數枚를自動車로市街地에散布하고돌아오는即時金錫天君의開會辭로開會한後會員點名을비롯하야順序대로臨時執行部選擧에議長鄭學先、副議長鄭時鳴、書記白信燮、金炳濟、司察李傑笑、孔義惟諸氏가當選되어鄭學先氏의司會로會順을着着進行中湖西記者團과同盟委員中孟義燮氏의祝電을비롯하야各地方團體로부터來着한四十五通의祝電祝文을朗讀한後알에와가튼重大事項을討議한後同七時半에同盟萬歲三唱으로永川初有의大盛況으로無事閉會하엿는바當日警戒는開會도하기前에幹部中金錫天、朴錫圭兩氏를警察署로불러만흔注意를시키고七八名正私服警官들이臨場하여討議事項에無理干涉又는討議禁止等으로警戒는자못嚴酷하엿더라

利益本位로하기로期함
萬一大衆本位의目的意識을떠난行動을敢行하는者는本同盟에서積極的撲滅을期함

(바)朝鮮共產黨公判에關한件
(禁止)

(사)地方警察에關한件
所謂人民의生命財產을保護한다는警官으로서無理한行動이잇슬때에는本同盟에서그의非行을積極的으로調查摘拔하야全國的輿論을喚起하기를期함
(1)永川花山事件에關한件
新任委員에게一任하야警察當局責任者에게再次質問하기로함
(2)彥陽殺人事件에關한件
誤殺된報道를[illegible]行한釜山日報社에警告文을發送키로함
(3)朝鮮民報에關한件
永川花山事件을誤報하엿슴으로警告文을發送키로함

(아)警官拷問事件에關한件
朝鮮共產黨事件에關한警官拷問事件은當局者에게警告文을發送하기로하되新任委員에게一任키로함

(자)慶北記者大會에關한件
來十二月中旬頃에金泉에서開催되는慶北記者大會에準備委員을派送하되委員에게一任함

(차)本同盟經費에關한件
從來에記者個人이負擔하든것을變更하야支局에서負擔키로함
支局每月一圓分局每月五十錢
雜誌社每月五十錢

◇被選된新任執行委員
姜徹 曹福述(蔚山)張仁煥(大邱)崔達興 曹喜胤(慶山)李傑笑 朱秉禧(盈德)鄭學先 李獻雨 李伯甲(浦項)孔義惟 鄭時鳴 金錫天(永川)朴一瑛 朴錫圭(慶州)

第二日

慶東記者大會第一日의經過는別項報道와갓거니와第二日인十五日에는午前九時부터永川靑年同盟會館에서新任執行委員會를開하고臨時議長金錫天 書記白信燮兩氏를選擧하야左의事項을討議하다

一、部署擔任에關한件
▲庶務部委員金錫天 李獻雨 朴錫圭▲調查部委員 張仁煥 鄭學先 鄭時鳴 李傑笑 崔達興 姜徹▲經理部委員李伯甲 孔義惟 朴一瑛 朱秉禧 曹喜胤 曹福述▲常務部委員 張仁煥 李獻雨 李傑笑 金錫天 朴錫圭

二、本社對支分局에關한件
本社對支分局問題는委員을選定하야各本社에派送키로함
(決議文은略)

三、地方警察問題에關한件
派送委員金錫天 朴錫圭
永川警察署長에게花山事件質問委員을派送키로하야左記五氏를派送質問하다
鄭學先 李獻雨 李傑笑 金

意味잇는 懇親會

天靑文川支部 創立準備懇談

지난十三日午後一時부터咸南文川郡雲草面川內里에서는天道靑年黨文川支部를創設코저하야모든準備에紛忙中이엇스나如意치못하야懇談會를열고左의任員만選定하얏다더라(文川)
◇任員=文川支部黨頭金重鋪
第一接代表金成信
第二接代表金秉基

德川푸로靑年 臨時總會

平南德川郡蠶上面에는去月下旬에同面內의中堅靑年들이푸로靑年同盟을組織하고以來不斷한活動으로그의運動은組織的으로하여오는바더욱히今後靑年、農民의運動部門을確立코저去十六日夜同面棲鶴里私立育英學校에서教養部委員朴通陽氏司會로第一回臨時總會를열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德川)
◇決議事項
一、勞働運動을支持할것
一、農民俱樂部를援助할것
一、夜學開催等

番石里에 農民夜學

平南德川푸로靑年同盟이第一回臨時總會를지난十六日에열고夜學을開催키로決議하엿섯다함은別項報道한바와如하거니와同同盟에서는其翌日夜부터即時農民夜學을本郡蠶上面番石里私立光成學院內에開設하고作文算術其他必要한知識을講師朴勝騰氏가教授한다는바學生은이미十餘名에達하엿다더라(德川)

天安勞働會 創立準備

忠南天安邑은京釜本線과京南鐵道의起點으로交通에重要地임으로勞働者의數도近千餘名에達하나아즉아모勞働團體가無함으로이를遺憾으로생각한有志와勞働同志들이去一日夕에朝鮮日報支局에會合하여協議한바勞働會創立을發起키로決議하고去十五日夜東亞日報支局에서再次準備會를開하고創立에對한一切의事項을決議한바左와如하다더라(天安記友團)
◇創立大會
一、時日 十一月二十四日夜
一、場所 天安靑年會館
◇準備委員
規則草案及議案作成委員 盧緒鎬 宣傳委員 崔鍾浩 全熙豐 田鶴根 宋秉鎬 文一峯 社交委員 柳來儀

固城農民組合 常務委員會

慶南固城農民組合에서는秋收期에小作問題를討議코저지난十八日午後七時에當地靑年同盟會館에서常務執行委員會를開하고그執行方針에對하여長時間討議한

南原靑年同盟 臨時大會召集 來十二月二日

全州製菓勞組 月例會

全北全州製菓勞働組合에서는지난十五日下午八時半同會館에서孫錫龍氏司會下에月例會를開催하고前會錄朗讀과其他事項을決議하고同十時閉會하엿다더라(全州)
◇討議事項
一、鄭奉守君解雇事件에對하야調查에一任되다
一、委員增選의件 增選하기로하고各工場에一人式으로할등와如히選擧되다
林奉土、韓判同外一人

間島墾民 教育研究會 臨時委員會

間島墾民教育研究會에서는去十二日에同會事務所內에臨時委員會를開하고左와如한決議를하엿다더라(間島)
◇決議事項
一、各私立學校에서採用하는教員은必히紹介하여주는同時에其資格을審查할것
二、臨時總會에서決議한것을積極的으로實行할것
三、各期放學을機會로教員講習을開할것

裡里女子靑年 一週年紀念式

湖南線裡里女子靑年會에서는創立一週年紀念式을來二十六日午後七時에裡里座에서擧行한다는데當日은米洲에서榮貴한學位를

新幹會各地消息

蔚山支會準備

朝鮮의大衆運動이方向을轉換하야民族的單一政黨을促成하는新興勢力인新幹會가全民衆의總力量을集中하는이때에慶南蔚山郡에서도有志羡徹外諸氏의活動으로會員을募集하는中인바數日內에支會設置大會를開催하리라더라(蔚山)

木浦支會幹事會

新幹會木浦支會에서는지난十九日下午二時半부터本會館에서臨時議長崔景河氏의司會로第四回幹事會를열고千均氏의前會錄朗讀과金商圭氏의經過報告를마치고諸般事項을討議決定한後同午後五時에無事閉會하엿다는데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木浦)
◇決議案
一、幹事金榮周辭任의件受理함
一、定期大會準備의件
大會는오는十二月四日午後一時에開催하기로하고諸般事는準備委員九人을選出하야一任하는同時에大會場所까지一任함
◇大會準備委員
金末鳳 徐炳寅 金太俊 千均 曹克煥 張柄俊 金明錫 朴在鶴 崔景河

明川支會準備

新幹會가나오자全民族各層의際勢와함께都鄙를勿論하고支會의準備가爭先하는道程에잇슴으로明川地方人士들도支會準備에그동안粉忙하든바會員數도多數募集되엇슴으로二十日設置大會를연다는바一般聲援이만타더라

一段落지은 一新女高普 收金에努力 校舍도建築

問題多端하든晉州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는新選派總辭任으로幹部諸改選을보게되어將次躍光을보게되엇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지난十一日下午二時부터新任理事會를臨時議長姜復淳氏司會下에開催하고理事長及常務理事를投票로選擧한結果理事長金琪國常務理事許萬正南氏가被選되고其他諸般決議事項에들어圓滿採

鹽湖勞働組合 來三十日創立

賦役過重 安州道路工事 面民大不平

[illegible]되어一般面民은各其里民大會를召集하고其對策을講究中이라는데國稅에도一般貧富의差別이잇슴에不拘하고道路賦役에如斯한區別도업시每戶均一三十錢의砂利를賦役하라고함은到底히不當한일임으로此에應從할수업다는것이요이에不平과抗爭이날로甚하여감으로道路修繕은預想外에進就되지안흐리라는데이에對하야安州面長李顯奎氏는말하되今番賦役은果然不當합니다마는現金과勞役이다름으로上司에서差別할必要가업다함으로이가티한바인데今年은이미써가는것임으로無可奈何이나明年부터는上司의諒解를求하야貧富의區別이잇게하겟슴니다하더라(安州)

大邱少年同盟 執行委員會 警察이禁止

大邱少年同盟에서지난十九日午後七時부터同同盟執行委員會를開催하엿든바警察當局에서는同盟執行委員朴貞植 李相玉兩君을召喚하야前日大邱에잇는片倉製絲工場에서日本人監督이朝鮮少女에게私刑한事件을書面으로地方團體에게通知하엿든바이를問題로하야出版法違反임으로始末書를提出하면署長과高等係主任이容恕하야주겟다고하며開催하려든執行委員會는時期가상서롭지못함으로當分間集會를禁止한다는條件으로集會禁止를命함으로하는수업시禁止를當하엿스며始末書提出에對하여는方今考慮中이라더라(大邱)

安城醫院開業 紀念으로一個月間 本報讀者無料診察

安城邑內場基里安城醫院長南澤熙氏는世富蘭偲醫專出身으로京義線南川驛前에서多年間醫業에從事하다가前記場所에서開業하엿는데氏는今般開業을紀念코자特히本報讀者와一般極貧者에게限하야서는今月二十日부터來月廿日까지無料診察을하리라더라(安城)

朝鮮牛 滿洲輸出 耕牛로良好

朝鮮牛의需價는日本에서到處에認定되어其移出頭數는逐年增加하는데其大部分은勿論肉食用으로一面에는朝鮮의牛는耕牛로理想的條件을具備함으로朝鮮으로보면오히려牛의本產地라는北滿方面에서도其價値를認定하야特히在住朝鮮人은長久한傳統으로도耕牛는朝鮮牛가아니면안될듯이尊重함으로今春東亞勸業公司에서는所有耕地의小作人을爲하야平北牛十二頭를耕牛로購入하엿든바其結果는자못良好함으로同社는다시朝鮮牛의滿洲輸送을計劃하고二十二頭를購入하얏는데價格은牡一頭百二三十圓牝一頭九十二三圓裏로其結果가良好하면滿洲에서朝鮮人의水田耕作者의增加함에伴하야朝鮮牛의滿洲輸出은益益增加할것이라고하더라

電信開始郵所 本年中에

本年度의電信電話整備計劃中에새로이電信事務를開始한個所及電話에依한電報通信을改良하야와如히決定하야各其工事準備에着手한바地方의發展에伴하야從來郵便貯金事務만取扱하든郵便所에電信事務도取扱케하고또電信通信數의增加에依하야晉州電信機를裝置하게되엇더라
◇電信開始 京畿驪安 全南王果 平南 大平 黃海遂泉 靑丹 慶北 無極
◇電信機裝置 京城鍾路三 京城岡崎町 龍山漢江通 仁川花房町 晉州城外 新義州常盤町

釜山에 少年收容所 設置計劃

免因保護事業을主眼으로其目的의達成에努力中인釜山輔成會는近年少年法及其矯正院法等의發布를하게되엇고또釜山에不良少年의數도逐年增加의傾向이잇슴으로此處에少年收容所의必要를痛感하고今番同事業을此方面에延長하려고今年六月評議員會에서此를決議하고總督府에認可申

大同江口에 燈浮標設置

一、燈質 아세치린瓦斯閃光白色每七秒毫隔하야三秒間에二閃光
一、燭光數 二百
一、光達距離 晴天의夜八海里

元山組銀 爲替受拂狀況 十月中

元山組合銀行의十月中爲替支拂高合計는三百三十一萬三千七百七十八圓六十三錢이요受入高合計는二百六十二萬七千百九十四圓六十一錢인데前月에比하야支拂高는九十一萬八千百六十二圓의增加이고受入高는二十五萬八千九十六圓八十五錢의減少라는바支拂高增은多物買入代金決濟上關係이요受入減은米豆出廻가旺盛치못한故라더라(元山)

元山汚物掃除 府營後狀況

元山府의汚物掃除는去十月一日부터府營으로한以來府에서直接此를行하여오는데最初의事業인만큼不如意한點도잇고多少支障도不無하엿스나如何間多大한非難은업시今日에至하엿다係員의말을들으면來年度부터는完全히府民에게滿足하도록實行할터이나目下境遇로는多少非難도不無할줄안다그러나糞尿는最初부터此를賣却하야收入을得할方針으로十一月中一個日間糞尿代가二百六十圓인데이것은府內及府外의果樹園經營者와中國人日本人等農業者에게賣却한것으로運搬其他의關係로充分히賣却치못한結果普通三百餘圓에達할것을二百七十圓만되엇다한다一方塵埃等에使用함으로收入이無하다하며一般府民에게希望하는바는便利한設備를하여줄일과各戶에塵

元山最近市場物價

井邑農業學校 學生製品品評

天安聯合討論會

朝鮮各海 各種漁獲大豊 四年寡獲을 一氣에回復

今年은水產方面도全朝鮮的으로非常한豊漁로北朝鮮의鰯는비롯하야南朝鮮方面의各種漁獲高는過去四年間의不漁를一氣에回復한感이잇서殖銀과如한漁業組合을通한貸出資金의回收는자못順調이라더라

南鮮鐵拂込期 來月一日決定

(東京電) 南朝鮮鐵道會社發起人會는十九日正午工業俱樂部에서開會하고根津嘉一郎、大橋新太郎氏等의發起人이出席하야申入超過株에對한協議를한바朝鮮의申入株一萬五千株는事業地인關係上全部受入하기로하고拂入期는十二月一日부터十日外지로決定하고또當日은重役問題의協議는行치못하엿는바根津氏의社長就任은거진確定되는모양이라더라

平壤公職者會 松井氏留任을決定

平壤府尹松井信助氏의煙草會社專務就任問題는各方面에對하야意外의波瀾을惹起케하는中이며딸아서一般의輿論도重大化하야진모양인平壤府各公職者들은지난十六日부터連日聯合協議會를開催하고此問題에對한先後策을討議하는中松井氏가煙草會社專務로入社치못하게되는것은總督府內部의不統一과醜態를餘地업시暴露하는것이며朝鮮統治에도重大한影響이밋는다하야市民大會를開催하고此를攻擊하라하얏든바平南道知事의不贊成으로不

南方巡廻記(五)

朴心耕

◇

二十四日早朝에는梁址煥氏의案內로咸陽에有名한上林을求景하게되엇다咸陽支會長梁址煥氏와盧俊泳 崔性準諸氏의一日休息을懇曲히勸誘함을畢竟謝絕하고섭섭한作別로咸陽을떠나서朝鮮의名山中의其一인智異山을左로끼고돌아서慶南과全北道界를넘어南鮮의最高原地帶인 雲峰에를午前九時半지나서到着되엇다

이高原地帶인雲峰은海拔一千三百餘尺의山上이다 그러나處處에平野가展開하야地味도比較的肥沃한便이든듯하다 晉州압平野를貫流하는晉江(俗名南江)水가이곳에서 發源이되엇다할때또다시금懷故의晉陽생각이懇切한바잇섯다

一行은다시南原行自働車票를사고發車時間을몰으니 十一時지나서이라한다 그동안에二時間의餘裕가잇슴으로 市街를求景키로하고名勝도잇다면時間머로求景하며靑年會도차저보고저하엿다 雲峰이라면全北南原郡의最東面이요 또智異山上의高原地임으로 이름잇는 곳이다 住民의戶數도 相當히만흔듯함으로 靑年會와가튼團體도의례히잇슬것을밋고 路上行人을붓들어뭇으니 靑年會라고잇기는已往잇섯스나 會舘은個人의住宅으로되엇고 幹部도有耶無耶에누구인지몰으겟다하야時間도만흔餘裕가업섯슴으로차저보지못하고名勝으로는南原公園新設中에잇는馬山에올라서一時半餘고단한몸을亭子우에서쉬이고十一時지나 南原으로向하게되엇다

◇

雲峰에서南原으로가는길은마치蓼山峽嶺에서 降下되는듯하야 길은비록二等道路이엇스나實로急한傾斜는自働車上에서危萬險千萬이엇섯다

距離도멀지안흔 五十里(朝鮮里程)동안을 每時에平均七八十里는無難히간다는自働車가一時間半以上을要하야 南原에到着하니十二時半이엇다 南原은廣寒樓 烏鵲橋로有名한곳이다 當日은市日도市日이엇스려니와매우 繁華하야보이엇다 群山旅館에들어 點心을먹고全州行自働車票를산뒤에廣寒樓를차저갓다『南原이라! 廣寒樓를올라서니景槪는조커니와!……』하는宋萬甲이노래를聯想하면서樓에올으라하엿스나地方區裁判所의占領으로 섭섭하엿스나그만두고 烏鵲橋만건너서有名無實하다는支會를訪問하게되엇다 大門入口에는 新幹會 中外朝鮮三看板을가러걸고잇스나 마치當日은市日이라아모도업섯다 名啣만두고 나가는길에會長朴琪永氏를맛나고 金葉春君도맛나서이야기도充分히못하고 自働車上에서 作別하엿다

◇

午後二時半全州를 向하야떠나는길에 멀리智異山을 目送로 作別하고 빨리닷는自働車는任實에 니르럿다 自働車가暫時쉬이는동안에 市內를求景하고 新幹支會도訪問하얏스나마치幹部가 不在中임으로맛나보지못한것이 遺憾이엇다 任實의背景인 任實公園의丹楓은 매우求景할듯하얏스나그냥지나치고 全州에로北을向하야떠낫섯다

午後四時半全州에到着하야中央旅館으로먼저들어 一行이다沐浴을하고 夕飯을마친뒤에當信차줄것이잇서서 爲先本報支局을차저갓스나 밤도늣지안흔午後七時頃에 大門은쇗다처무슨苦客이나차저간듯이 冷待하는못하엿다 支局長도不在中이라하야 맛나지못하고全州支會를찻게되니 會長裵恩希氏와宋柱彈氏를 맛나게되엇다當夜에는마츰부슨會議가잇는모양이엇스나 警察에不當出이란 理由로會를 解散시키는光景이엇다三高等主任以下巡查양반이와서

四年前나(筆者)가 運動線上에나서면서부터 憧憬하든湖南地方!그踏查를苦待하든 全羅道!를몸절가티하로밤을 지나기는매우섭섭하얏다 全南의木浦 光州 順天 光陽 求禮等地에는 나는同志도만흐나 全北에는別로업섯다全朝鮮記者大會及全朝鮮民衆運動大會當時에 맛나든知友도적지안흘것이나 지금에는 記憶이暗暗하얏다이번에 全州에서裵恩希氏와 宋柱彈異甚成氏는一見如舊로알엇슬뿐이다

◇

全州에서 또만흔同志들의挽留함을 謝絕하고 밤車로京城을向하게되엇다 車中에서一夜를또지나게되어 民世先生은道中裡城驛에 들어가게되고碧初先生과 無事히京城에到着되것이即二十五日아츰七時半이엇다 서울을떠난지도벌서滿十日이다

이번旅行은短時日에도 퍽興味가잇섯다 本性이또무엇보다일의(大衆的)進就에 特히痛快感을가지는바이요 그에痛狂的熱情을다하는바이다 慶南地方에大衆의期待가多大한 單一黨新幹支會가 今番에二十日에未參한昌原을加하야 咸安 固城 晉州 河東 陜川 居昌 咸陽 以上八個處가다盛況으로 圓滿히設置되엇고 從來各道別로新幹會順序에第六位에處하든 慶南이第二位로一躍昇進된것이가장第一快感이다 또各地를다니면서나外지貽弊가 만혀든것이未安한바이다 本是紀行文에案識이업는바로서 興味잇는材料(地理歷史人文產業에關한)는省略하고實로一瀉千里的으로 매우簡單하고無味한것으로 地方同志의深厚한 同情을感謝하는同時에來來더욱 健鬪를仰祝하고 新幹會萬歲萬歲萬萬歲를함히소리처부르면서 또分立에서統一을高喊처부르면서……

一九二七、十一月十八日稿了

高靈陸地棉 共同販賣

元山港에 入港船舶稍增 以後旺盛預期

新穀輸出期에入한以來當港의入港船舶이相當히增加되엇다는데稅關監視係의談에依하면最近廻航을始로한船舶은川崎會社의豐山丸、三福丸、大明丸의三隻과朝郵의大福丸、春海丸等으로入荷貨物로는別般特種이無하고當港의積荷로는穀物이多少잇서例年에比할수업고方今市勢低落의關係인지不遠에一般船舶共히活氣를呈하리라하더라(元山)

朝鮮米運賃 調停案通知 穀物聯合會가

紛糾中에잇든鮮航會의朝鮮米運賃值上問題에關하야去十八日夜穀物聯合會로부터元山穀物商組合에鮮航會問題解決한旨의來電이잇섯고딸아서十九日朝書面으로如左한通牒이有하얏더라(元山)
◇調停運賃
一、昭和二年十一月一日以降昭和三年一月十一日外지는舊運賃率에依할事
二、改正運賃은昭和三年一月十六日以降各港投錨船으로實施할事
三、改正運賃은鎭南浦仁川群山木浦輸出은金四圓釜山馬山은

城津公普校 復興策講究

水橋公普校 敬老會開催

十一月十八日午後二時에松禾郡水橋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가今年度農業試作物中野菜를賣却하야學父兄中七十歲以上老父母와高年姓女八十四歲外三十餘人을招待하야和氣滿場한中片山校長의趣旨說明을비롯하야어린男女學生의遊戲唱歌로開會하고敬老의祝盃로盛況裡에同日午後五時에閉會하엿더라(松禾)

地方漫筆 富平水組區內 地主各位에게

素砂支局 一記者

◇

時間은흐른다限업는空間에서그리하야前에업든 모든새로운背景으로새록새록이人生社會에慘劇을演出하얏다 오날의千態萬象으로制限잇는大地에서 그덩어리들들이지못하는 人間들은生을爲하야 다시存在를表하기爲하야最善의努力을 할때에참아 等閑히傍觀치못할일이其天地에서자리를 占領케되나니오날의各地에서 蜂起하는小作爭議의背景이그러하다 이를發生케하고이를漸盛케하는原因이어데잇스랴 果然그의正으로무러인것을아는이 몃치나되는가

◇

잘되엇거나 못되엇거나엇잿든요뻬요쉐상外지幸혀나시원한

[illegible]
리라

◇

粒粒이다辛苦라는 비人선비의徒情이라도 오날의地主된諸君이가지고서 多變多恨한世情과風前燈花인우리農民을 넘우괴롭히지말어달다는말이다 몰이가면배도온다는말이 天理에여으려짐은아닌듯하다 諸君이炎天暑雨는고사하고斜陽村路에남아田畓의畦畔이라도 밟어본적이잇는가 春風秋雨무릅쓰고長長夏日蒸炎下에 지친몸과곱흔배로힘써애써 一年農事지엇스나그代價은허리써지는 滿洲粟도明年의커녀틈을 지날길이더옥슬프고漠然하다

◇

勿論녯날농흥모양은아니다그러나 보라前日의水利이니改良이니增殖이니아니하얏든그때와지금의모든施設로나날이變作을하는 이때와를比較하야보라財閥의魔手인外來經濟가한번이江山에旋風을몰리자삿삿치農村에써지쌔치어 地主는自農으로또다시小作으로小作은滿洲나西伯利亞로얼마나 順序잇게破滅의階級을밟고 잇는가이는時히去月五日京城食道園에서 열린地主會席上에서 六割五分을主唱하나 엇지에돌지안코愚衆을必要가여긔에업다하라

◇

바라건대 諸君이여잇는權勢고만하고 저農民의勞苦로써한알고 感謝를들리지안는가 저로諸君의不幸을同情함이니이를를잡맛보고、업는者의懇願으하야一斛을提供함도 人間苦勞五割이든 小作料를六割로肯定다함을살펴보라 저의가年來로組合이란絕對로諸君과싸홈이定諸君의哀情을 바라는同時에惡地主란萬人의怨府가 되지말기를바라고 쓰는로蝙蝠의舍音輩를痛治하야모름즉이 四千農民의痛恨이사히지안토록 하기를賢明한地主諸位에게 懇祈하노라

●訂正=十一月十八日付本報第二五八六號에揭載된本報讀者慰安이란題目下에『十字말』懸賞募集에對하야左와如히誤植되엇삽기玆에訂正함
◎縱으로푸는法
2、(文秀山稱氣를다고난御史의姓名)은3의課稿
3(반가히마지하는會合)은40의課稿
◎橫으로푸는法
81(野蠻人의)課稿51의

仁川慈善 音樂舞蹈大會

◇日時 十一月二十二日午後七時
◇場所 仁川山手町公會堂
會費白券五十錢 紅券三十錢 學生半額
◇主催 仁川花平里少年會
◇後援 仁川少年斥候軍 開闢仁川支社 東亞、朝鮮兩支局

慶北普校兒童 身體發育成績

남자신장백사십팔미리구분 녀자는일백사십칠미리이분

總數二萬四千九百

경북도학무당국(慶北道學務當局)에서는 얼마전부터 도내각남녀보통학교아동(道內各男女普通學校兒童)의 신장급톄중의 발육상황(身長及體重發育狀況)을 실디로 검사하엿는바 남학생이 일만구천구백구십륙인으로 신장평균이 백사십팔미리구분이요 톄중이 이십이『크람』칠분이며 녀학생이 사천구백구십팔인으로 신장이 일백십칠미리이분이요 톄중이 이십이『크람』륙분인데 이를 일곱살부터 열두살까지의 남녀평균신장과 톄중으로하면 다음과갓다더라(대구)

◇男學生

年齡	身長	體重	生徒數
七歲	一〇八、四	一九、四	一、七〇五
八歲	一一三、五	二〇、一	二、六九九
九歲	一一八、七	二二、五	二、八四三
十歲	一二〇、〇	二三、五	四、〇六二
十一歲	一二八、四	二五、四	四、〇八六
十二歲	一二九、六	二七、五	三、七三三

◇女學生

年齡	身長	體重	生徒數
七歲	一〇四、五	一七、三	六六〇
八歲	一一三、五	一九、七	八六五
九歲	一一五、六	二二、一	八〇七
十歲	一二八、五	二二、九	八九九
十一歲	一二四、四	二五、五	九二七
十二歲	一二八、八	二七、五	一、二七五

獵銃가지고 작란하다가 남의눈을쏘아

충주군충주면본정(忠州郡忠州面本町) 원구상점(原口商店)점원편강륙랑(片岡六郎)(一九)는지난십칠일오전아홉시에룡산리(龍山里)대방(大方)이라는사람의집으로 일용품의 주문을바들어갓다가 그집에잇는 엽총을가지고꼬야모(高野某)의아들인무웅(武雄)(一)에게 향하야작란을하다가 의외에재여 노흔화약이터저나오며 어린아이의 왼쪽눈을중상케 하엿다는데 다행이생명에는 관계업스리라하며 방금충주도립의원에서부상한아이는치료중이며가해자는충주서에서엄중취조중이라더라(충주)

鐵原高富豪의 遺產爭奪로格鬪

사용인의압니가불어저 被害者는告訴까지

텰원군텰원면 월하리 이십팔번디(鐵原郡鐵原面月下里)거부고계하(高啓河)씨가세상을떠나자 그의 유산에대하야 고씨의아들오형뎨간에는 삼각사각으로 재산문뎨에대한 소송문뎨가 세간의 이목을 끌어오든중지난십삼일에는 고씨의장남인고중권(高重權)씨가 동군동면동리십륙번디에잇는 최병현을 시키어동송면관우리(東松面觀雨里)『감우』소리는곳으로 타작을보내엇든바 고씨의 삼자고달권(高達權)이가 타작하러나갓던 최씨를때리어압니 두개를불어트리어 최씨는분함을 참지못하야 당디구세의원(救世醫院)에가서이주일의진단서를 마타가지고 텰원경찰서에 고소를 제긔하얏슴으로경찰에서는고달권을 인치한후 방금엄중한 취됴를하는중이라는데 그자세한바를듯건대 최씨는 고중권의 명령에의하야 권긔장소로 타작을나갓던바 고달권이가 타작한벼를 못가져가게함으로 최씨는 고중권씨가보내어왓승즉 집에가서 가져가던지하라고하야 결국은 격투가일어나게되자 고달권과가티왓던 이삼인이달려들어구타하야결국압니두개가불어지게되어 그와가티고소를제긔한것이라는데텰원일반인사는그문제에대하야주목중이라더라(텰원)

잠고대한巡查 畢竟懲役免職

순사교습소안에잇스면서 간질알코무단히나왓다고 罷免巡查는告訴準備

문경군(聞慶郡)에원적을둔리명화(李命和)는 지난칠월에 순사시험(巡查試驗)에입격되어경북순사교습소(慶北巡查教習所)에서공부를하고잇든중모사건으로인하야 심지어교습생까지 전부풀어내어범인을수색하든중리명화도역시나와서밤낫삼발간이나 근무하다가 긔숙사(寄宿舍)로 돌어가자든중 자연히 여러날 근무하엿승으로 인하야 끈이잠을이기지못하야 잠을꾸는동 헛소리를하엿든바 이소리를 한방에서자든 가튼교습생리인호(李仁浩)란자가듯고서 그이튼날교관(教官)에게 말하기를 명이라는간질이 잇스니 도저히가티잇지못하겟다 함으로 이것이 엇지엇지소장(所長)의귀에까지 가게되어면직을시키느니엇지하느니함으로 아모리 변명을하나 듯지아니함으로 이에 분개하야 삼분간외출을한후 긔숙사에 들어오매 삼곡 화뎐두교관(杉谷和田兩教官)이 그를불러여러가지로 말을 풀게함으로 다시잇겟다고하엿더니 그이튼날 소장은 그를불러사표를 제출하라 함으로 그는대답하기를 나는잘못한것이업스니 그리하지 못하겟다 하엿든바 지난삼십일에 그를불러서 징계면직(懲戒免職)이란 사령서(辭令書)를 줌으로 하는수업시와왓는바 그는이 분함을 참지못하야 명예훼손이란 명목하에 지난십구일 대구디방법원검사국에 소장마현희(所長馬鉉熙)와 순사리인호를상대로하야 고소를 제긔하엿는바 사건이매우자미잇슴으로일반은만흔흥미를가지고서그결과를주목하고잇는모양이라더라(대구)

今後의京城은 (一) 零落乎發展乎

都市上으로본 京城의區域

각방면으로보아사실상으로 부근린접면주민도경성부민

行政區域이發展을束縛

경성은조선의 중앙도시 이라는 것만큼모든긔관이 거개 이곳에 뿌리가박혀잇고 조선사람은 물론이요 일본사람이나 기타외국인들까지도 생활근거가 이곳에 잇는터이라 조선이라는 큰눈으로보면 경성도 조선에잇서서한 쪼각디방(地方)에 불과한다고 하겟지마는 사실에잇서서 경성은조선의심장(心臟)이라고할수 잇다경성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아니라면 조선에사는 사람들가 누구나할것업시 영양부족에 걸리지 안흘리라고 확언할수 업는 터이라 그러나오늘날 경성은과연엇더한 뎡도에 빠저잇는가? 그면적으로 말하면행정방침(行政方針)에곳게속박이되어쇄국시대(鎖國時代)의남어지인성벽(城壁)을표준으로불과일천육십여만평밧게 되지아니하는 데인구는삼십삼만륙천이나되며 그중에도뎐(田)답(畓)하천(河川)도로(道路)와 가튼곳을 제하고보면정말사람이 살수잇는곳은 불과삼분의일밧게 되지아니 하며 이부민들이 가지고잇는자산(資產)은불과십삼억륙천여만원에 지나지못하는데 이에부채를 제한재산(財產)으로본다면그빈약함이다른 도시에는비할 여디도 업는중그자산이라는것이그대로 잇는것이아니다 외국도시로 말하면고뎡자본(固定資本)을활용한다는 의미에잇서서 동산(動產) 부동산(不動產)을융통하고 뎌당이되어잇는 것이 그도시민의활동을여실이 말하는 것으로 볼수잇지마는 조선사람 으로말하면이것이야말로속담에도령입장사람세음으로엇더한대상업가라든지 대공업가라고 할지라도 그고뎡자본에 다가생활 근거를 박어노코곰팡이 피는남어지 자본으로 영업을하는사람 외에는 보다 가실패를당하는전례에비추어보아서자산을뎌당하야긔업을 하는사람은 거개실패를 걸머지고잇는것으로볼수가잇스며딸아서여간수입은재외자본주(在外資本主)의호주머니속으로몰려가게되는 터이라 뎌데로말하면 경성조선사람의 재산이 뎌당된 것은 일종의 몰락하는현상으로 밧게볼수업다 최근 경성부의비밀됴사에의하야 모처로 부터들은바에의하면 토디가 매년천평에대하야 십이평식이 조선사람의손을떠나고 가옥이 매년천간에대하야 열두간반식이 조선사람의손을 떠난다고하며 딸아서 실업자(失業者)빈민(貧民)이날로늘어가는 터이니 지금으로부터경성조선사람의 운명이 어느때까지 계속이될는지 이것을면하자면 경성을 얼마만치키우고 경성의 발뎐력을 얼마만치늘니고경성의 경제력이 얼마나되어야할것인가하는데대하야우리는 무엇보다도고심하야생각할필요가잇승으로 금번 경성부도시계획계(都市計劃係)됴사를참고로 금후삼십년이라는 한도막 세월을 표준으로 금후의경성을말하고자한다

南山을中心으로 六키로半徑大圓

그러면 무엇보다도 경성이라는 범위가 얼마나 한가를말할필요가 잇는데 디방행정구역(地方行政區域)을 의미한것이요산업(產業)이라든지 문화(文化)뎡도로 보아서 또는 엇던영향을밧는자연구역(自然區域)즉경성이란도시구역은 아니다 경성부도시계획계에서 경제산업문화기타 모든면으로비추어보아 남산(南山)의 최고봉을 중심으로하야 륙『키로』의 반경(半徑)으로 대원(大圓)을 그리고 그속을 경성으로하고 계획을세웟는데 이속에 포함되는동리는 오십여동리나된다 하며그면적은 삼천만평이나된다는데 이구역은 명의상으로 경성이 아니라고할수잇스나 사실에 잇서서는경성부민과가티 도시의 혜택을입으며 리해를가티할뿐만 아니라대부분주민이 경성부내에서 직업에종사하게되어잇다고한다

大邱市內에서 二千年前古物發掘

돌로맨든창을다수발굴

대구부대봉뎡(大邱大鳳町)대구중학교(大邱中學校)압헤서『도두맨』을 발견하고서발굴(發掘)한다함은 당시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지난십구일 오후네시경에 또다시 동교서편부근일대에서약이십개의『도두맨』을발굴하엿는바 그중에서 돌로맨든(石斧)창(槍)한개와부수어진창(石片)두개와 토긔 부수어진조각(土器破片)을만히발견하엿는데 이는지금으로부터 약이천년전시대의 물품으로 판명되엿다더라(대구)

장인毆打한者

지난구일오후한시쯤되어경남거제군거제면동상리(慶南巨濟郡巨濟面東上里) 김사홍(金士洪)의집에서는 사위가장인을 구타하야일대활극을 일우엇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듯건대 지금으로부터삼년전에 권긔김사홍의 둘재딸영순악(永順岳)(三三)을동면남동리(同面南洞里)권중석(權仲錫)의셋재 아들옥룡(玉龍)(三六)에게로시집을보내여이래삼년동안을 지나오든바 우연이금년봄부터옥룡의 처영순악 이가정신에이상이 생기어달 이가고날이갈사록 더욱더욱 심하여갈뿐아니라 옥룡의집에서는 하등의치료도하지안코 몰이어 너의친가로가서 치료를하라고 하며 때로는축출까지 한적이 한두번이아니라는바 그리다가 최후로 무슨마음을먹엇든지권긔영순악의남편인옥룡이가김사홍의집으로달려가서너의딸이처녀때부터 미친것을나에게로시집을보내엇스니도저히너들을용서할수업다고 그의장인인김사홍을무리하게구타한것이라는데이를본린근사람들은그무례한행동을그저둘수업다하야크게분개한다더라(거제)

運動競技

萬人渴望中에 씨름協會誕生

朝鮮에唯一한鄕土運動競技가잇스면서도不拘하고外國것그것만으로主眼을삼어自國이所有한바固有의運動競技그것을忘却에그늘에던진다는것은實로寒心한일이아닌가? 우리民族은古來로佛敎의輸入을바든以後오날까지그影響이殘在한듯하다 우리固有의運動競技를들어말하면『줄다리기』『씨름』『택견』『[illegible]』等이잇다 現在『줄다리기』는南鮮에서만히行하고잇스며『씨름』은北鮮地方을손꼽아實로그壯觀을呈하는바오즉遺憾되는바는歷史的말하엿거니와具體的聯絡과統一또는規律이업시分散的으로自然生長的過程을지나는오날에잇서朝鮮社會의情勢에비추어實로遺憾일뿐아니라各其地方을딸아細胞의獎勵機關이잇다하야도力量이적은이만큼그의功效도적엇든것이다 이에서期於히實現되고야말朝鮮씨름獎勵協會가誕生하야야만될것을일즉이부터運動斯界의權威者들은去二十日午後七時堅志洞本社樓上에서臨時議長金東濬氏司會로發起會及創立總會를開催하고同時에如下한決議事項이잇슨後十時頃에散會하엿스며發起人氏名은다음과갓더라

▲朴昌夏▲徐相國▲李丙三▲崔登萬▲金東濬▲朴宇秉▲朴誠和▲金永述▲韓[illegible]熙▲張[illegible]▲金根明▲秦蕃▲劉容俊▲李揆在▲金永濟▲姜環求▲李圭鉉▲[illegible]樂運▲崔祐東▲崔[illegible]男(無順)

繼續創立總會

別項『朝鮮씨름獎勵協會』의發起會가閉會後卽席에서創立總會를開催한바 臨時議長金東濬氏書記李揆在氏를選擧한後如下한決議가잇섯스며來廿七日午後七時再次委員會로모히기로하고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內容組織은來委員會에一任할

一、制度는委員制로서할但幹事人

一、維持方針의件來委員會에一任

一、會則制定委員을選擧한바如下

金東濬 李揆在 李圭鉉

一、事務所에關한件以上의交涉委員으로姜樂運姜環求張[illegible]三人을選擧

一、來二十七日午後七時定期에本社로會合할것

運動타임스社主催競漕大會

朝鮮運動타임스主催 朝鮮競漕大會는廿三日軍浦場以南에서開催하게되엿는바參加會員은廿三日午前七時十分京城驛發往는同日午後六時五分第六列車에便乘車中에서抽籤을行하야一等으로十等까지의賞品을授與할터이며競漕方法은二人一組로行하며規則은本大會規定에依하야한다하며會費는[illegible]이라더라

오림픽參加費 二百萬프란支拂 佛上院서可決

佛蘭西上院은明年八月『암스텔』에서開催될第九回國際올림픽大會大會에對하야佛蘭西選手參加費『二百萬프란』의支出案을去十五日에可決하엿더라

【備考】 佛蘭西의國際올림픽大會參加費支出案은今年七月에一次上院에上議하엿스나採決延期가되엇승으로佛國올림픽委員會에서는當時明年의同大會에參加치못할것을決議하야運動斯界의一大物議가되어잇든바去十五日에上院에서參加費支出案을可決하엿승을보아當然佛蘭西는參加케되어諸選手는猛練習을거듭하는中이라더라【聯合巴里電】

今日의運動

▲八團體籠球聯盟戰第三日―YB對壯年(午後七時)培材對學館(同八時)靑年會館運動室에서

面長의分外行動

少年團文書搜查하고 긔숙한소년단간부를쪼처내어 靈岩鳩林面長의失態

전남령암 구림소년단(全南靈岩鳩林少年團)에서는 금번업무를 확장하는동시에 단원을 증모하기위하야 집행위원들은 각기구역을마터 순회하면서 입회를권고하든중 동면장최현(同面長崔炫)은군서면경관주재소(郡西面警察官駐在所)와 련락을취하야 소년운동을 방해한다는데 동소년단위원 박찬걸(朴燦杰)은 동면장의집에서 긔숙하고잇는바 면장최현은 단원모집원서 용지를발견하고『이것이 웬것이냐? 조선 학생으로서 소년단가튼 것을 만들어가지고 불량한짓을하고다니면 현시대에 위반된행동이니 선량한사람이 되라면 소년단에서 탈퇴하라』고 박찬걸의 몸동이를 전부수색하야 소년단에 관계된서류를빼아슨후 이런불량한 소년은내집에서 긔숙시길 필요도업다고 그즉시 쪼차내엇다는데 이로써 구림소년단에서는지난십륙일오후여덜시에 긴급위원회를 열고 그대책을 강구한결과 면장최현의죄상을 일일히뎍발하야 사회에 공포하는동시에 본인에게경고문(警告文)을발하고사회뎍으로그사실을발표하기로결의하얏다더라(령암)

迷信으로人家襲擊

족하의병사가벌목한탓이라고 남의집을습격하야가옥을파괴

伐木한동티라고打人

함남문천군귀산면내양리(咸南文川郡龜山面內陽里)리풍등(李豐登)외 몃사람은지난사일오후 아홉시경에 동리 권진방(權鎮邦)과 그아들권수연(權秀淵)의 집을습격하야 문을 파괴하는등 부근일대에까지 일대풍파를 일으켜피해자측에서는 요지음 고소까지 제긔하얏다는데 이제그 자세한 내용을들으면 권긔리풍등의족하 리명헌(李明憲)은 얼마전부터 병으로신음하다가 결국죽은 사실이잇는데 이죽은원인은 권긔권진방이가 자긔소유인 리명헌의집뒤산에서 나무를 채벌한까닭으로 죽엇다하야 리풍등은 권진방을붓들어다가 리명헌의 죽은시톄와가티 노코무수히 란타하고도오히려 이것이 부족하야 그와가티 가옥을습격하야 일대소동을 일운것이라더라(문천)

汽車에서落死

지난십륙일오후팔시경에함경남부선운포역(咸南線雲浦驛)에서는신북청행오백사십오호의렬차에서청년한명이렬차가정거하기전에뛰어나리다가그만부참이죽어버렷다는바그청년은홍원군운포면동호리(洪原郡雲浦面東湖里)맹치풍(孟致豐)(一八)이라는사람으로판명되엇다더라(홍원)

臺灣全島의 藥品密輸事件暴露

상해로부터삼년동안이나 약품을밀수한것이발각돼 ◇醫師二十八名檢束

대만전도(臺灣全島)에궁한약품의 밀수입이 폭로되어 전도(全島)의의사이십팔명은 관세포탈자(關稅逋脫者)로서검거되엇는데 일시는상해(上海)로부터 삼년간에궁한약품네오사루바루산기타의약을밀수입하고네오사루바루산만으로도륙천수백개에달한다더라(대북뎐보)

婚姻狂의巡查

남의처에연서코 약혼할려고부요구

평남덕천 대평주재소(平南德川大坪駐在所)에근무하는 오윤덕(吳潤德)은 자긔몸에 화류병이 잇승에도 불구하고 조치못한행위를한다하야 디방의 여론이적지안흔터인데 얼마전에 룡상리(龍上里)에 잇는김모(金某)의 처류씨(劉氏)에게 엇던 소년으로하야금 얼마의돈을 주는등또는자긔명의에 내용이 조치못한 글을써서 전한사실이 잇서서평판이더욱 조치못하던바 요지음에는 또자긔처를 무조건으로리혼하고 엇던녀자와 약혼을하고는 집집마다 안내장을발송한후에혼인보조를 요구하는등의 행동을함으로 당디일반은 권긔순사에 대한비난이 자자하다더라

姦夫婦共謀로 前姦夫家에放火

평북강계군 외귀면(平北江界郡外貴面)섭골약물터 근처에사는 김성숙(金成淑)(三〇)이라는녀자는 그누근에살고잇는리춘삼(李春三)(四〇)이라는자와 공모하여 섭골약수의주인 장세환(張世煥)의소유인여덜간집에 방화하소케하여 약일천이백원의 손해를보게 하엿다는데 이제그사실을 됴사하여본즉 권긔김성숙은 자긔남편이 출타하엿승을 긔회로 약수터주인인『장』과정을통하여오든중 얼마되지안하여 정부인『장』은 김성숙을 배척하라는으로 원심을품고 권긔리춘삼에게정을 돌리어오다가 치정관계로그와가티 공모하여 불을노앗다는데 가해자두명은 만포경찰서를거쳐 일건서류와함께 강계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엇다더라

돈벌어살자다 안해를일어

결국은고소질

경산군 경산면 옥곡동륙백이번디(慶山郡慶山面玉谷洞六〇二)리중환(李仲煥)(三五)은 지금 으로부터 십오년전에 한무술(韓戊戌)(三〇)이란녀자와 혼인을하야지나오든중 가세가 곤난함으로인하야 부득이대정팔년칠월십오일에자긔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로동을하기로 목뎍하고갓스며자긔의 안해는 대구산십제사공장(大邱山十製絲工場)에공녀(工女)로와서 잇든중얼마 동안은 서로보지못한 회포와하소연을편지로서로전하다가그후사년전부터는도모지서신이업승으로 이상하게생각하고 얼마전에고향으로돌아와서 그의종적을탐문한즉 경산군경산면 옥곡동에잇는 정긔련(鄭基漣)이란 자가자긔의 안해를 꾀여서달성군수성면대명동이천사백이십륙번디전긔복(達城郡壽城面大明洞二四二六全基福)(三)의 안해를만들어버렷승으로하는수업시대구서(大邱署)에전긔세명을걸어 중혼죄급 유인죄(重婚罪及誘引罪)로고소를뎨긔하엿는바 장차이일이 엇더케해결될는지 일반은매우주목하는모양이라더라(대구)

품삯안준다고 마루장을떼어

결국은경찰에

대구부내 달성뎡리원하(達城町李源夏)(三五)는로동자로서 남산뎡황모(南山町黃某)의집에 가서 집짓는데품을팔아 딸원을 벌엇든바 그돈에서밧고 남어지 일원사십오전을 황모가 아니주엇든바리원하는몃번이나바드러 다니다가 아니줌으로 결국몃칠전에 주인도업는 황모의집을밤중에들어가서 품삯바들 대신에 마루장이라도 떼여가야만 하겟다고결심한후 마루를 떼여질머지고나오다가 이웃집 사람에게 붓잡히여 경찰의손으로 넘어갓든바 당국에서는 그정경이넘우나가긍함으로 엄중이 설유를하고 품삯을바더주고서 무사히돌려보내엇다더라(대구)

亂影 (四四)

崔獨鵑 作

安夕影 畫

고물상(古物商)【三】

『누가 싸왓니싸운애다이리오나라』

지금싸우든 두아이는 선생이라는그괴상한남자압헤나란히와섯다한애는좀크고 한애는좀적엇다좀적은애는 아즉도 울눈이사라지지 아녓는지 억개를 들먹어리며 주먹으로눈물을 씻고잇다

『그래왜둘이싸왓니?』

괴상한남자의 말소리는 극히부드러웟다

『커자식이 남의갈구리를막빼앗구안주니깐 달라구 그랫더니 낙을막패주엇답니다』

갑동이라는 적은애가 말햇다

『아닙니다 선생님고약정이는 갈구리가 두개랍니다 그리구나는갈구리한개잇는것이자루가빼커서 못쓰게되엇답니다 그래고 삭정이것을 하나달라구 햇더니 안준다구 버틔니깐그랫답니다』

복돌이라는 크다란애가 크다란 눈을굴리며자긔의변명을하엿다

두아이의말을 듯고난선생은 그뒤에쑥몰라서서 이싸홈의 판결을 구경하고섯는 다른아이들에게 물엇다

『너이들은 누가올코누가글타구생각하느냐말해보아라』

『남의물건을 함부로빼아스려고 한놈이나쁜놈입니다』

엇던애가 이러케 말하자

『아닙니다 두개식이나가지고 하나도업서서 달라는데 안준다구버틔는놈이 욕심장이요 나쁜놈입니다』

엇던애는 먼커한 그말을반박하엿다

선생이라는 남자는 설결우섯다

『올타 너이는들다글라갈구리를 두개나가지고 한개도업서서 달라는것을 괘이 승락지안코내것을 주장한갑동이는 물론글타 갑동이는『잇스면 다가티논와먹고쓰고 업스면 힘을다합해하야 맨들어내자』는우리집 규측을 어긔인것이다 그리고 갑동이가 갈구리를주지 안는다고 자긔의 힘에맷기어 패준복돌이도 글타 폭력으로써 평화를 문란하는것은 우리집에서는 절대로허락지 안는일이다 그러면 갑동이는 이자리에서 네의 갈구리한개를 복돌이에게 주어라 그리고복돌이는 갑동이에게 사죄를하여라 자긔보다 약한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것은 결코 치욕은아니다 남자의 톄면을 상할리도업다권력압헤 굴어안거나 굿세인힘압헤 머리를숙이는것보다는 얼마나 명예스러운일인지모른다』

판결은 내렷다 두아이는곳그판결대로 시행하엿다

다시평화는 회복되엇다 치롱을 둘러메고 갈구리를 손에든소년들은 곳노래를 부르며 거리로 홋터지려하엿다

이때에 선생이라는 남자는무엇을 생각하엿는지

『귀남아!』하고 커음뛰어가는 한아이를 불럿다 그의압헤 귀남이라는 가장조고만 아이가 와섯다 그는안으로 들어가서녀자의 고무신을반커레 들고나와 귀남이라는 아이에게 내어주며 말햇다

『너 이것을 이길로 어제가커온집에 가만히갓다가 네가 집어온자리에 두어야한다 이뒤로는그러케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훔쳐와서는 안된다 더욱이너는 압도못보는혼자사는 장님녀자의집에서 이것을집어온것은 아조못슬 짓이다 의물을 뜻드시입고 그리고도모양 창자를 채울대로채우고 룽다주 싸지를 내기위하여 가슴우에놉어트린 바오락이가튼 돈만흔신사의 금시계줄이나 부자집마누라의 가름이흐르는 머리에꼬친 백금침고지나 일이라고는 꿈에도해본적이업는 명주고름가티 보드러운 긴섬섬옥손가락에 들석쎗식씌어잇는 반지와는 그성질이 다르니까말이다 알아듯겟니?』

『네―네』

귀남이는 그고무신을바다 치롱안에다 집어너코 다시거리로휘파람을불며 뛰어나갓다

선생이라는 남자는 그아이들이 멀리사라지는 뒷모양을 이상한 미소로보내고 그는서서히 몸아서서 안으로들어가 버렷다

이괴상한 남자야말로 그고물상주인 맹일득(古物商主人 孟日得)이엇다